

보도자료

세계사적 소명을 실천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



서울대학교
SEOUL NATIONAL UNIVERSITY

보도일	제한없음		
배포일	2019. 12. 4.(수)	홍보담당	석조은 (880-6983)
담당부서	SNU국가전략위원회 (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)	문의	880-6983

SNU국가전략위원회, 제11회 SNU국가정책포럼

12월 4일(수) '대학의 미래, 서울대의 성찰' 주제로 개최

□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(이하, SNU국가전략위원회)가 2019년 12월 4일(수) '대학의 미래, 서울대의 성찰' 이라는 제목으로 제11회 SNU국가정책포럼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최한다. 본 행사는 서울대가 이들의 중요 가치인 공공성을 구현하는 국가정책 공론의 장(場)으로 2016년부터 개최해온 '국가정책포럼'을 확대·개편하였으며, 지난 8월 'SNU국가전략위원회'를 설립하고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비전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공공 싱크탱크(think-tank)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첫 행보로 본 포럼을 열 예정이다.

□ 이번에 개최되는 SNU국가정책포럼은 SNU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형 교수(행정대학원)의 개회사 및 오세정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'국가경쟁력과 대학, 대학교육과 미래인재상, 대학의 사회적 기여'라는 3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.

□ 첫 발표자로 김도연 명예교수(서울대 재료공학부, 前교육과학기술부 장관, 前 포스텍 총장)은 국가경쟁력과 대학을 주제로 발표한다. 본 발표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학혁신과 국가발전 사례를 제시하며 기존의 경직된 사고와 관행을 타파하고 대학이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며, 학생과 교수가 연구자로서 적극적

으로 지식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혁신의 장(場)이 될 수 있도록 인재-지식-창업(創業), 창직(創職) 연계를 통하여 대학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함을 강조할 예정이다.

□ 이어 대학교육과 미래인재상이라는 주제로 권오현 교수(서울대 사범대학, 前 입학본부장)가 미래사회에서 강조되는 인재상에 대해 **소통적 사고와 사회관계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‘교육디자이너’** 모델을 제시한다. 특히, 본 발표에서는 기존의 교육목표와 달리 미래교육은 개개인의 다름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다양성,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한국형 연계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며, 학교-대학-직업의 연계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학교교육과 대학입시, 사회공정성 강화를 위한 교육여건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할 예정이다.

□ 마지막으로 김의영 교수(서울대 사회과학대학)은 **대학의 사회적 기여**라는 주제로 시장에서 기업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, 대학 또한 고등교육과 연구를 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구성원으로, 그리고 사회참여와 사회혁신기제를 창출하는 근간으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. 이를 위해 본 발표에서는 대학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로 서울대학교의 글로벌사회공헌단, 사회공헌형 교과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사회혁신프로그램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.

□ 본 포럼의 주제발표 이후 홍준형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인 김도연 교수, 권오현 교수, 김의영 교수를 비롯, 염재호 교수(고려대 행정학과, 前고려대 총장), 신종호 교수(서울대 사범대학), 이석재 교수(서울대 인문대학,) 이하경 주필(중앙일보)이 패널로 참여하는 **집담회**가 이어진다. 본 세션에서는 앞서 발표된 3가지 주제와 함께 서울대의 현재와 미래를 되돌아보며, 서울대가 과연 이 같은 대학본연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며, 대한민국 사회발전에 어떠한 책임과 기여를 해

왔는지,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 사회발전을 위한 인재양성과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. 이 포럼을 통하여 서울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 교환과 소통, 숙의를 토대로 대학의 미래와 서울대의 책임 및 역할에 대한 공론을 형성하고 올바른 정책제안을 도출, 제시하는 것을 끝으로 포럼을 마무리한다. 포럼 후 국가전략위원회는 12월 11일(수) ‘대한민국의 인구변동과 사회문제 대응’이라는 주제로 제12회 SNU국가정책포럼을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.